

# ‘광주 군 공항 이전’ 돌파구 열리나

광주연구원 합평·무안 여론조사  
합평, 찬성이 3.0%P 높아  
조사 첫 찬성이 반대 앞질러  
무안도 찬·반 오차 범위 근접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합평 500명, 무안 500명)을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합평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3.0%P 높게 나타났다. 찬성 45.9%(적극 찬성 31.1%, 대체로 찬성 14.8%), 반대 42.9%(적극 반대 26.7%, 대체로 반대 16.2%), 모름·무응답 11.2%였다. 찬성 의견은 남성(52.6%)이 여성(39.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8~30세 미만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44.5%로 가장 낮았다. 무안에서는 반대 47.8%(적극 반대 30.9%, 대체로 반대 16.9%)가 찬성 44.4%(적극 찬성 28.9%, 대체로 찬성 15.5%)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7.8%였다. 역시 남성(53.8%)이 여성(34.9%)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51.0%)가 가장 높고 40대(38.5%)는 가장 낮았다. 군 공항 유치의향서 제출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지역 모두 지역발전(합평 69.9%·무안

61.8%)을 꼽았다. 생활 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합평 11.8%·무안 14.5%), 상주인구 증가(합평 8.8%·무안 8.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는 소음 피해(합평 59.9%·무안 61.1%), 지역발전 저해(합평 16.6%·무안 20.6%), 환경오염(합평 7.6%·무안 7.5%), 안전 문제(합평 5.5%·무안 5.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전화면접 50%, 자동응답조사(ARS) 50%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찬성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광주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 광주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2~5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합평은 반대 45.1%, 찬성 42.5%, 모름·무응답 12.4%였다. 무안에서는 반대 56.0%, 찬성 37.1%, 모름·무응답 6.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한 해 용역비만 585억원 심의서 부결 잦아…무조건 맡기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심창욱 시의원, 용역 만능주의 질타  
강기정 시장 “심의 꼼꼼히 해 개선”

광주시가 발주하는 무분별한 용역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민주·북구 5) 의원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용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학술,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역 만능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며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광주시가 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78억원, 올 들어 4월 말까지 131건에 걸쳐 78억20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매년 수 백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가 하면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그 결과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지만,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사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 산학연합의회 가진 분과 기업 대표들이 17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대우위니아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시의회서 기자회견…“수백 개 협력업체 줄도산 위험”  
광주테크노파크는 17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광주 산학연합의회 가진 분과 기업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호소했다. 김인권 디알텍 대표는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직원의 임금체불은 이미 심각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수만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 그 가족들에게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집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전 산업을 지탱하던 앵커 기업들의 연쇄적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수백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위험에 처해있다”며 “지역산업,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광주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 산학연합의회 등은 전날 조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시립수목원 20일 문 연다

전국 유일 공립수목원…24만 7000㎡ 온실·정원 등 갖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립 수목원이 없는 광주에 도시 공원형 수목원이 문을 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개장하는 광주 시립 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24만 7000㎡에 전시 온실, 한국정원, 잔디광장, 초화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온실에서는 망고, 파파야 등 열대식물을 볼 수 있으며 한국정원에서는 전통 정원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초화원, 오감정원, 관목원 등 주제별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낼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시립수목원은 협오시설로 인식된 광역 위생 매립장 주변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하려고 조성 예정지를 지정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개

원하게 됐다. 시립수목원은 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하고 보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심에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쉽게 찾아와 수목 유전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수목원 정원법에 따른 국가 공인수목원 인증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인증을 위해서는 수목 유전자원을 1천종 이상 확보하고 보존·증식 연구시설, 관리시설, 전문 관리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100대 명품숲’에 전남숲 10곳 선정

산림청의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강진 초당림 등 전남의 10개 숲이 선정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잘 가꾸어진 숲을 찾아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국민 추천, 온라인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최종 확정했다. 100대 명품숲은 3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산림경영이 우수한 29개소, 휴양을 즐기기에 좋은 45개소, 보전 가치가 높은 26개소로 구성됐다. 전남

도는 3개 분야에서 10개소가 선정되며 강원도 25개소, 경북도 12개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이 선정됐다. 분야별로 산림경영숲은 강진 초당림과 서기산 편백숲, 순천 백이산 편백숲이 선정됐다. 산림휴양숲은 나주 도민의 숲(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보성 윤제림 숲정원, 장성 축령산 편백숲, 화순 무등산 편백숲, 화순 동북면 편백·참나무숲이, 산림보전숲은 장흥 천관산 동백숲, 함평 모평마을숲이 포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